



즉시 배포용: 2018 년 7 월 2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고향을 떠나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자들을 위해 200 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간 이후 푸에르토리코를 주지사가 다섯 번째 방문한 직후, 푸에르토리코 주민 가정의 고용, 주택, 건강보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0 만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

고향을 떠나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11,000 명 이상의 푸에르토리코 주민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를 위한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재난 직후 푸에르토리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보고서 이후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주정부 투자 계획

[여기](#)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다섯 번째 방문한 Cuomo 주지사의 사진 및 동영상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0 명이 넘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피해자들을 위해 200 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해 9 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휩쓸고 간 후 이 섬을 다섯 번째 방문한 직후 발표했습니다. 200 만 달러의 초기 투자금은 취약한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고용, 주택, 복지 상담, 건강보험 등과 같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휴 단체에 전달됩니다. 이 투자는 주지사의 이전 공약인 고향을 떠난 푸에르토리코 주민에 대한 주택과 인력에 대한 기금 최대 1,100 만 달러 이외의 기금입니다. 이 투자 계획은 연방 정부가 한심하게도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를 위한 대비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재난 직후 푸에르토리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보고서 이후에 발표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해 첫날부터 뉴욕은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주민 가족을 양팔 벌려 환영합니다. 우리의 동료 미국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계속할 것입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처한 곤경은 신의 뜻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뉴욕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겪은 심각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200 만 달러의 초기 투자금으로 뉴욕시, 그레이터 로체스터 지역, 고향을 떠난 주민 가정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도 지구에 중점을 두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뉴욕시 소재 가톨릭 채리티스(Catholic Charities), 뉴욕 재난 종교 초월 서비스(NY Disaster Interfaith Services), 어번 헬스 플랜(Urban Health Plan), 유니언 커뮤니티 헬스 센터(Union Community Health Center),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디아스포라(Diaspora for Puerto Rico) 및 로체스터 소재 이베로-아메리칸 액션 리그(Ibero-American Action League), 암스테르담의 센트로-시비코(Centro Civico of Amsterdam) 등의 단체들을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들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직후에, 이 주민 가족들을 돕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재해, 필요성 평가, 사례 관리 서비스 등의 결과로 푸에르토리코를 떠난 주민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역점으로 삼는 일은 취약한 가정에 필요한 고용, 주거지, 복지 상담, 의료 건강보험 매니저 및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가 포함된 건강보험 등과 같은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 가족들에게 소액의 현금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단체들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 가구와 주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입니다. 이 유형의 사례 관리는 초강력 폭풍 샌디(Super Storm Sandy)의 결과로서 주민 가족들에게 성공적으로 제공되었으며, 가족의 삶을 재건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금, 파트너십,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동료 미국인들의 재건 및 복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돕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 때문에 고향을 떠난 주민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허리케인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재난 발생 후 도움을 주는 데도 실패했지만, 저희는 이제 뉴욕주의 위대한 시민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새로운 주택과 직장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 대교구 가톨릭 채리티스(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Y)의 몬시뇰 **Kevin Sulliva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Cuomo

주지사님의 대표단이 지난해 발생한 엄청난 허리케인 피해에 대한 복구 활동을 계속 수행하면서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자매 형제들과 뉴욕 주민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톨릭 채리티스(Catholic Charities)는 복구 활동을 돕고, 또한 현재 고향을 떠나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주민 수천 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기타 비영리 단체, 노동 조합, 교육 기관, 민간 부문 그리고 기타 기관들과의 제휴는 미국의 중요한 지역을 성공적으로 재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베로-아메리칸 액션 리그(Ibero-American Action League)의 Hilda Escher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낯선 도시에서 홀로 건강보험을 알아보거나 일자리를 찾고 주거지를 확보하는 등 필수 사항을 관리하는 일은 현 상황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 이 일은 많은 사람이 겪는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해 첫 날부터, Cuomo 주지사님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로 신음하는 섬의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주지사님이 약속한 지원의 긴 목록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푸에르토리코를 계속 지원해 주시고, 푸에르토리코를 돕는 우리의 업무를 지원해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재난 종교 초월 서비스(New York Disaster Interfaith Services, NYDIS)의 사무총장이자, 뉴욕주 재난구호 자원봉사 단체(New York State Voluntary Organizations Active in Disaster, NYS VOAD)의 Peter B. Gudaitis (목회학 석사)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뉴욕주는 오랜 기간 푸에르토리코 디아스포라의 본거지였습니다. 지난해 10 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이 섬을 휩쓸고 지나간 후, 수천 명의 주민이 뉴욕시, 로체스터, 기타 지역사회로 탈출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원조 경험이 있는 뉴욕 출신의 작업자들이 이 섬에 도착하여 재건 및 복구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개월 동안 뉴욕 재난 종교 초월 서비스(NYDIS)와 재해 인적 서비스 제휴 단체들은 여기에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의 삶도 재건하고 있습니다. 장기 복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뉴욕 재난 종교 초월 서비스(NYDIS)는 고향을 떠난 주민 모두가 뉴욕에 재정착하든지 푸에르토리코로 돌아가든지 간에 지속 가능한 복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복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위기의 시기에 우리 동료 미국인들에게 치유, 지원, 희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주지사님과 협력하여 연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번 헬스 플랜(Urban Health Plan)의 Paloma Hernandez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섬을 휩쓸고 간 이후 고향을 떠난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뉴욕에서 재기하려고 시도할 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연방 정부가 허리케인 이후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직면한 고통을 간과하고 무시한 반면,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든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니언 커뮤니티 헬스센터(Union Community Health Center)의 최고경영자인 **Douglas L. York**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삶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로 산산 조각이 났습니다. 고향을 떠난 수많은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뉴욕에서 재기하려고 시도하는 시기에, 유니언 커뮤니티 헬스센터(Union Community Health Center)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고향을 떠난 푸에르토리코 주민의 재기를 진심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주지사님과 협력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디아스포라 주식회사(Diaspora for Puerto Rico, Inc.)의 **Víctor R. Martínez** 회장 겸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바로 여기 앰파이어 스테이트와 푸에르토리코 양쪽에서 사기를 북돋우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가장 최근의 활동은 자연 재해의 여파로 푸에르토리코를 떠나야 했던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 바로 여기 우리 주에서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뉴욕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교양을 갖추고, 수많은 주민 가정과 주민 개인이 경험한 어려움과 투쟁을 인식하면서 우리 주민과 지원 서비스 및 단체들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계속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님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센트로-시비코(Centro Civico of Amsterdam)의 **Ladan Alomar**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리더십과 푸에르토리코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게 재건하기 위해 우리 이웃 주민을 돕고 있는 주지사님의 비전에 감사드립니다. 이 종합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해에 발생한 허리케인의 여파 속에서 섬을 떠나 뉴욕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있는 주민 가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뉴욕주의 푸에르토리코 주민 공동체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와 다시 한번 가정을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 미국 시민을 돕기 위한 필요성을 인식해 주신 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저희는 이 주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위원회(New York Stands with Puerto Rico Rebuilding and Reconstructing Committee)의 공동 위원장인 **Marcos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의 푸에르토리코 방문은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에 뉴욕이 현지 주민과 연대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및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학생들부터 주정부 기관, 뉴욕의 선출직 공무원, 숙련된 작업 자원봉사자, 비영리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뉴욕 주민은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활동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로 향한 첫 번째 비행부터 고향을 떠난 주민 가정이 앰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일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주민을 위해 모든 단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브롱크스 자치구의 Ruben Diaz Jr. 자치구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고향을 멀리 떠난 주민들을 잊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Cuomo 주지사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푸에르토리코의 남녀 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한 공백을 메우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주신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푸에르토리코에 대한 뉴욕 공약 실천의 빛나는 모범 사례로 허리케인 마리아가 휩쓸고 간 후 이 섬을 다섯 번째 방문하신 주지사님과 함께 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투자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Martin Dil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Cuomo 주지사님과 함께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한 점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푸에르토리코에는 아직도 할 일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는 폐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 섬의 우리 형제 자매 주민을 모두 잊어버렸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대표단 모두는 계속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왔으며, 푸에르토리코 지역사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의 지원 활동으로 고향을 떠난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돕는 이 활동을 목격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Gustavo River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방 정부의 혐오스러운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복구 대처 후에, 이 섬의 제 자매 형제 주민과 연대하기 위해 나서고 뉴욕과 연대하는 푸에르토리코 복구 및 재건 프로그램(NY Stands with Puerto Rico Recovery and Rebuilding Initiative)을 돕기 위해,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푸에르토리코를 유린한 후 다섯 번째 이 섬을 방문한 Cuomo 주지사님과 동행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칭찬할만한 활동으로 현재 고향을 떠나 뉴욕에서 거주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 대단히 필요한 자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이 대의를 위한 주지사님의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José Serran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지나간 후, 수많은 푸에르토리코 주민 가정은 섬을 떠나 뉴욕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지칠 줄 모르고 대변해 온 것처럼, 주지사님은 고향을 떠난 주민 가정이 일자리와 주거지를 찾아서 보다 나은 삶을 꾸리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 지원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이 푸에르토리코 주민과 항상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Luis Sepúlved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휩쓸고 지나간 후, 푸에르토리코 주민 수천 명이 자신들이 잘 알고 사랑했던

보금자리와 지역사회를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일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더욱 안좋은 일은 이 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섬으로 다시 돌아 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뉴욕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느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커다란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우리의 동료 미국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자원,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푸에르토리코에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뉴욕주 하원의 다수당 의원들, 특히 푸에르토리코/히스패닉 태스크포스(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 팀의 제 동료들은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끔찍한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료 미국인들이 수행하는 지속적인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길고 어려운 복구 과정 중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armen Arroy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의 여파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삶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의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을 떠나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하는 일을 돕기 위해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을 게을리하고 모든 푸에르토리코 주민을 이등 시민으로 취급함에 따라, 뉴욕은 합당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국 시민을 돕기 위한 책임을 떠안은 주지사님과 함께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대한 연방 정부의 야비한 대응 때문에 푸에르토리코는 여전히 재건을 위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괴롭게 지내는 것을 워싱턴이 무시하는 동안,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이 푸에르토리코를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떠난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뉴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Carmen De La Rosa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섬과 뉴욕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우리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한 우리의 방문 직후에, 주지사님은 고향을 떠나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지금의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지원으로 그들이 일자리와 주거지를 찾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주민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배려심이 깊은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Erik Dil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다시 한번 워싱턴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Trump 행정부가 우리 동료 미국 시민들에게 계속 냉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욕 주민이 제공하는 관대함과 사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앞장선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지 주민이 두 팔 벌려 환영하기를 기대합니다.”

Victor Pich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섬을 유린한 직후, 푸에르토리코를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당연히 뉴욕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우리의 동료 시민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가운데, Cuomo 주지사님은 이 주민 가정의 뉴욕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을 돕고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hil Ramo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처가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Cuomo 주지사님과 이 섬의 재건을 위한 주지사님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수많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여전히 전기, 주택, 기타 중요한 필수 사항들을 갖추지 못한 채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새로운 자원으로, Cuomo 주지사님은 책임을 지고 모든 부서가 따라야 하는 방식으로 나서서 지원할 것을 연방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푸에르토리코 주민에 대한 확고한 공약의 실천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Robert Rodrigue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Hurricane Maria)가 상륙한 이후, Cuomo 주지사님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앞장 서서 워싱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오늘 주지사님은 고향을 떠나 뉴욕에 자리잡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을 연방 정부에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방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데 주지사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푸에르토리코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쉬지않고 싸우고 있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